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3월 20일(금) 제 3284호

민주당 전북 단체장 후보 36명 확정 경선 레이스 본격 돌입

전북도, 중동 리스크에 수출기업 긴급 지원 나서



민주당 전북도당 10개 시군 단체장 후보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등 전북 10개 시·군 단체장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10개 선거구 36명 1차 심사 통과
군산 8명·임실 6명 '다자구도'
5인 이상 선거구 예비경선
과반 득표 없을 경우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당 공관위는 이번 심사에서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에 총 3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공개했다.

선거구별로 ▲군산시(8인) ▲임실군(6인)은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또 진안군·부안군(각 4인) ▲전주시·익산시(각 3인) ▲무주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각 2인)은 2~4인 후보군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후보자들은 정세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평가 등 6개 항목(100점 만점)과 서류심사, 면접, 적합도 조사 부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쳤다.

이들은 도내 14개 선거구에서 열린

는 합동연설회와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경선방법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예비경선은 후보자가 5인 이상인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차 심사 결과 기준으로 군산시, 임실군이 해당된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상위 4인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후보자가 2인과 3인 이상일 경우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2인 후보자 지역은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등 4개 선거구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 50%가 합산 반영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인 지역은 전주시, 익산시, 진안군, 부안군 등 4곳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이 진행된다. 결선은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반영한다. 경선 관련된 자세한 일정은 선거구별 특성고 후보자수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재운 공관위원장은 "이번에 확정된 경선 후보자들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별된 만큼, 향후 경선을 통

해 지역 발전을 이끌 역량과 비전을 도민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로 신뢰받는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심사에서 ▲사람중심 ▲도덕성검증 ▲클린공천 ▲낙하산 공천 배제 등 4대 원칙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한편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아래와 같다.

전주시(3인) : 국주영은, 우범기, 조지훈

군산시(8인) :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성, 진희완, 최관규

익산시(3인) : 심보규, 조용식, 최정호

진안군(4인) : 동창욱, 이우규, 전춘성, 한수용

무주군(2인) : 윤정훈, 황인홍

장수군(2인) : 양성빈, 최훈식

임실군(6인) : 김병이, 김진명, 신대용, 성준후, 한득수, 한병락

순창군(2인) : 임종철, 최영일

고창군(2인) : 심덕섭, 조민규

부안군(4인) : 권익현, 김양원, 김정

기, 박병래 /장정철 기자

옥수수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삼양은 자연에서 얻은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

SAMYANG
SINCE 1924

이성운 "이민정책 선진화로 해외인재 유치해야"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 발의
비자·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민정책 체계화 필요성 강조



이성운 의원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비롯한 이민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근거 법률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우수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민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 정착 시스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우수 해외인재와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며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려면 먼저 그들이 이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톱

티어(Top-Tier) 비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K-STAR 비자트랙 등 비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러 부처가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적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이민 관련 전문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전북도, 478억 투입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추진

유기동물 구조·입양 지원 강화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6곳 확대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시설 확충 개 식용 종식·의료체계 개선

전북도가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정착 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478억 원 규모의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양·의료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입양 지원 사업에 총 92억 원을 투입한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12억 원, 입양비 지원 6억 원, 구

조장비 및 사후관리 3억 원 등을 지원해 구조부터 보호, 입양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 개체 관리 강화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94억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해 유실·유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해 시·군 지역 보호센터 건립 지원을 1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에도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에 30억 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에 5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전·폐업 지원 사업에도 약 64억 원을 투입해 관련 업계의 업종 전환을



식용 목적 사육견

<자료사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영양 및 의료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동물영양 허가 갱신제 도입과 동물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수의 의료체계 도입으로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전북이 동물복지 선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동물학과와 유기 예방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신뢰 중심' 공공서비스 강화

'4단계 프로세스' CS 교육 진행 협업 방식 개선 민원 대응 강화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19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을 넘어 신뢰로 -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2026년 상반기 CS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비스의 본질을 '친절이 아닌 '신뢰'의 관점으로 재정의하고, 임직원 민원 응대 역량과 내부 협업 태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내부 협업 과정에서 '업무 전달'이 아닌 '서비스 전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과, 책임 전가가 민원을 증폭시키는 구조임을 사례를 통해 학습했다.

교육을 수료한 임직원들은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 언어'를 스스로 정하고, 실제 민원 현장과 내부 협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신뢰 중심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상황 심상치 않아" 환율안정 3법 우선 처리 촉구

환율 1500원·유가 100달러 '우려'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조 "국힘 위원장 정부위 '발목' 직격"



한병도 원내대표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서민지역 일자총소기업 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속한 정책 추진 편성을 지시하셨다"며 "정부가 3월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환율안

정 3법, 즉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며 "이 법들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합의해 통과한 법률"이라며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른 정책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경

제 관련 입법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위원회 문턱에 막혀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지연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법처리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상위위원장 배분 취지는 선의의 경쟁이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과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AI·SW 미래인재 신규 강사 선발

미취업 청년·퇴직자 등 30명 모집 160시간 교육 현장 투입 강사 양성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6년 소프트웨어(SW) 미래재용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AI·SW 교육을 수행할 신규 강사 3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SW 미래재용사업은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중등학생과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AI·SW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북도 거주 미취업 청년, 경력보유여성, 전문퇴직자 등이며, 교육 경험자나 SW·IT 관련 전공·경력 보유자 등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이메일 swmiraechaemujb@gmai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5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총 160시간의 집중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전주와 남원에서 교차 운영되며, AI·SW 기초 이론부터 블록코딩, 인공지능, 생성형 AI,

피지컬컴퓨팅, 메타버스 등 실습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안 제작과 교수 설계, 수업 운영 역량 강화, 교육현장 안전관리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20명이 SW 미래재용 강사로 위촉되며,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SW교육, 체험 프로그램, 캠프 및 각종 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2023년 SW 미래재용사업 선정 이후 강사 양성과 학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신규 강사 모집을 통해 지역 AI·SW 교육 인프라를 한층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인재가 강사로 성장하고 다시 지역 학생을 교육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복지부와 정신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

전북권역 정신응급센터 현장 방문 응급·급성기 치료 연계 강화 논의 정신건강 통합 대응체계 강화

전북도는 19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내 전북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

신질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북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신응급 대응체계 운영 현황과 급성기 치료 연계, 퇴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신질환 발생 초기부터 응급·급성기 치료, 퇴원 이후 지역사회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정신건강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북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정 이후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체계를 기반으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하며 초기 대응과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광대학교병원은 급성기 집중 치료병원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도는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 운영 지원 등 정신건강 대응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251209-중-203541호

보건복지부 선정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2023, 2024년)

심·뇌혈관 치료 중점 병원

원광대학교병원 |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전주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재개발 조합·시공사 현장 방문 발로 뛰는 세무 행정 서비스

전주시가 올해 처음 도입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첫걸음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지방세 상담을 포함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19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2200세대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인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현장을 방문해 발로 뛰는 세무 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건설 현장 방문에 앞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찾아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와 기타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어 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속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상담하면

서 주요 세무 제도와 지방세 신고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상담에서 건설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와 주요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 기업에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소민 기자

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장인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실질적인 세정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CCTV관제센터 안전보호 '큰 역할'

신속 대응으로 시민 생명구해 CCTV 24시간 감시 운용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속 대응은 전주시민 안전보호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원은 지난달 27일 자정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덕진구 아중호수 일대에서 50대 남성이 위험한 행동을 보여 이를 포착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몇분 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해 해당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

했다.

현재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전주시역 2007곳 설치 5047대 CCTV를 24시간 감시·운용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만건 이상의 범죄 예방 및 영상자료 제공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해 범죄예방단평가 지표 분석 결과로는 방법용 CCTV 설치 이후 우범지역과 112신고 건수, 5대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평균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사전 안내

자진납부 유도·소명기회 부여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이전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으로 지난 16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원과 법인 51억원 등 총 104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상세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정소민 기자

시는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징수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해 가택수색 통해 현장에서 1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압류동산 165건을 공매해 6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책과 함께 달려요!” ‘2026 전주 올해의 책’ 4권 선정

시, 시민 선호도 조사 거쳐 최종 선정·발표

책의 도시 전주시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올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2026 전주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

시는 '2026 전주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그림) 부분 황금 고라니(김민우 글·그림, 노란상상) △어린이(글) 부분 거의 다 왔어!(윤일호 글·정지윤 그림, 내일을여는책) △청소년 부분 늑지의 렌(최상희 저, 창비) △일반 부문 노 피플 존(정이현 저, 문학동네) 총 4권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739명의 시민

이 추천한 도서 중 중복도서를 제외한 203권의 도서에 대해 내부 심의와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부문 12권(어린이(그림)·어린이(글)·청소년·일반 각 3권씩)의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ijbook.kr)을 통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총 5813명의 의견을 반영해 '2026 전주 올해의 책'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어린이(그림) 부문은 어린이를 향한 믿음과 지지가 얼마나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황금 고라니'(김민우 글·그림, 노란상상)가 선정됐다.

또 어린이(글) 부문의 선정 도서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이끌어주는 친구들과 지리산의 넉넉한 품을 통해,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과 함께 걷는 법을 일깨워주는 '거의 다 왔어!'(윤일호 글·정지윤 그림, 내일을여는책)가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 부문의 선정 도서인 '늑지의 렌(최상희 저, 창비)'은 서늘하고 긴장감 넘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다정한 시선과 끝내 잃지 않는 인간다운 용기가 묵직한 울림과 희망을 전하는 작품이다. /정소민 기자

끝으로 일반 부문에서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안팎에서 흔들리는 동시대인들의 맨얼굴을 작가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그려낸 깊이 있는 작품인 '노 피플 존'(정이현 저, 문학동네)이 선정됐다. 이 책은 관계의 피로 속에서 고립을 원하면서도 완전한 단절은 불안해하는 현대인의 모순된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해 낸 작품이다.

선정된 '2026 전주 올해의 책'은 올해 △100일 필사 △시민공모전 △저자 초청 강연 △가족 독서 골든벨 등 제9회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시 주제 도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가 '2026년 전북 화재감식 경연대회'에 참가해 △화재 원인 분석 △감식 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사진=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화재감식 경연대회서 실력 입증

'화재조사 전문성' 입증

전주완산소방서가 '2026년 전북 화재감식 경연대회'에 참가해 △화재 원인 분석 △감식 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두 대원은 △실제 발화 지점 판별 △원인 규명 △조사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 화재를 예방하는 화재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화재감식은 재난 예방과 안전 정책 수립 핵심 분야이다. /김영태 기자

경험 및 팀워크 바탕으로 뛰어난 분석 능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두 대원은 '2026년 전북 화재감식 경연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두 대원은 △실제 발화 지점 판별 △원인 규명 △조사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 화재를 예방하는 화재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화재감식은 재난 예방과 안전 정책 수립 핵심 분야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추진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와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시는 올해 총 1000만원을 투입해 약 5개 기업 내외를 선정할 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 참가비와 임차료, 전시장 설비 및 장치비 등이며, 해당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전시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중 최근 3년 이상 개최된 전시회로, 외국관 구성이나 해외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등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된 전시회에 한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전주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fanht@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지역 금은방 범죄 강력 대응

진단-전산화-등급관리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도내 금은방 대상 강·절도 범죄에 따른 신속 범죄 대응을 위해 금은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시적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도내 금은방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와 범죄예방단순을 3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통해 CCTV 설치 여부, 비상벨 작

동 상태, 개폐장치 등 방범 시설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 이력과 방범 시설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하고 전 사업장을 등급별 분류에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범죄분석과 순찰을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도 적극 활용한다. /김영태 기자

관련 자료를 전산화·시각화해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도출하고 범죄 발생에 따라 관리등급별 차등화된 순찰 기준을 적용해 금은방 주변 가시적 순찰을 강화한다.

또 112·형사·기동대·기순대 등 경찰전 기능이 긴밀히 협업체를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국가암검진 받으세요!”

전주시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암 검진 캠페인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제19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암 예방 홍보 주간'으로 정하고,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

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로,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이날 전주중앙성당과 중앙시장에서 1차 캠페인을 펼쳤으며, 오는 24일에는 덕진노인복지관

에서 암 예방 캠페인을 추가 전개할 예정이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순위로, 대부분의 암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암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이번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 예방 생활 수칙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홍보했다. /정소민 기자

이와 관련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위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간암 대장암·유방암·폐암이 추가된다. 또 자궁경부암 검사는 20세부터 받을 수 있다.

검진은 2년마다 받을 수 있으며 국가암 검진에 대한 항목 및 검진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재활보건의료' 개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장애인 재활보건의료'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팬마비·하지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신체기능 유지 및 2차 장애 예방을 목표로, 요일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주 4회(월~화, 목~금) 진행되며, △장애인 체조교실(월요일) △장애인 요가교실(화요일) △작

업치료교실(목요일) △관절가동범위 운동교실(금요일)로 구성된다.

특히 체조 및 요가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의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통해 균형 감각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작업치료교실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돕는 맞춤형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관절가동범위 운동교실에서는 관절 구축 예방과 통증 완화를 목표로 단계별 운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각종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향상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9일 '2026년 1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서별 임무 숙지를 통해 총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주덕진경찰서가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소민 기자

훈련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가 동시에 발생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출동대는 실제 재난 출동과 동일하게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해 출동하고, 현장에서는 인명검색 및 구조, 화재 진압,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 등 각 기능별 임무를 수행하며 통제단 운영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또 현장지휘소 운영과 상황판 작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등 통제단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농업 생산·유통 등 총 25개 과제 선정 20억원 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을 19일부터 공고한다. 지원사업은 농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유통·가공 △농촌 생활서비스 등 농업·농촌·식품산업 영역에서 AI 기반 응용제품 상용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1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과제 15개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0개 등 총 25개의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평균 20억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다. 사업공고는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a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18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K-푸드 및 농산품 분야 수출업체 애로·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기존 노선 폐쇄/변경 등에 따른 물류 차질, 활중료 등 물류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 취소 등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는 △중동 지역 농식품 △농업 수출기업 및 협·단체 △농협경제지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바우처에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를 신설 하는 등 물류 관련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원료 및 부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용자)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출기업 수요에 따라 대체시장으로의 수출 전환 바이어 연계, 해외인증, 박람회·K-푸드 페어 참가, 유통매장 연계 판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페이퍼 제41회 '우수제지인상' 수상 영광

전주페이퍼 정점열 과장, 심철식 대표이사, 전재만 부장 <사진=전주페이퍼> 업계 전문성·기여도 공식 인정 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신문용지 설비를 산업용지로 전환한 JCM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구조 전환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정점열 과장은 1992년 입사 이후 생산 품질 관리의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현장 전문가로, 리와인더 공정에서 제품 최종 품질을 책임지고 있다. 설비 개선과 공정 관리 활동을 통해 지절(紙切) 개선과 생산 유연성 확보에 성과를 냈으며, 현장 기술 교육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조직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장기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실제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전주페이퍼는 국내 대표적 제지기업으로서,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공정 개선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중소기업 연구개발 촉진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일부 선착순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북TP는 지역 내 공공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내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비 통합 관리 플랫폼인 '장비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에는 도내 41개 기관 및 대학에서 보유한 약 2100여점의 연구개발장비 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본 시스템을 통해 장비 검색 및 예약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 내에 분사, 기업 부설연구소, 공장, 지사 등을 둔 중소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장비 이용료의 최대 80%까지(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장비정보제공시스템(https://jbjangbi.jbtp.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7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연구개발장비 활용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TP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은 도내 중소기업 연구·기술지원 인프라 활용 활성화와 연구개발 활동 촉진 위해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농업가뭄' 인공지능 활용 선제대응

4만여개 공공 관정 데이터 수급 예측 모형 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가뭄을 인공지능 활용 선제 대응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농업가뭄 대응 위한 인공지능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가속화되면 저수지와 하천 등 지표수가 단기간에 마르는 '돌발가뭄'으로 이어진다.

이에 공사는 돌발 가뭄 상황에서 지표수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로 수자원을 다변화하며 가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지하수 개발은 적합한 지역 탐사와 인허가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가뭄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전국 4만여개 농업용 공공 관정에서 수집한 이용량·수위 데이터를 인공지능

에 학습시켜 지하수 수급 현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지하수 부족량과 가용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가뭄에 대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현재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을 더 고도화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실증을 통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가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 관리체계 구축

과 함께 기존 관정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전국 511개 농어촌용수 구역을 대상으로 농업용 공공 관정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10개 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지구씩 확대한다. 아울러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를 보충해 물 부족을 해결하는 '지하수 함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축산경제 연도대상 수상

조사로 부문 2년 연속 이번 수상은 장기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실제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기후 변화에 의한 어려운 재배 여건을 극복하고 양질의 국내산 조사로 생산 체계를 강화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2년 연속 축산경제 연도대상 수상은 전주김제완주축협을 믿고 노력해준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호남지방데이터청-섬진흥원, 섬 지역 정책연구 활성화 나서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MOU 체결도

호남지방데이터청(청장 정구원)과 한국섬진흥원(원장 조성환)은 19일 한국섬진흥원에서 섬 지역 정책연구 활성화와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한 섬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 인프라를 상호 개방해 이를 과학적 정책 수립기초로 활용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 구축, 미래 설계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호남지방데이터청이 관리하는

기업통계등록부 및 주택통계등록부 등의 분야별 모집단(母集團) 기본정보와 한국섬진흥원의 전문 데이터를 상호 개방한다. 또 호남지방데이터청 및 한국섬진흥원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섬융합DB(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사업체 및 가구 데이터를 다각도로 연계 분석해 섬 지역 산업 환경 인구구조 등을 파악하고 섬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굴한다. 정구원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섬은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상황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정교한 통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섬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나 활용 가능한 섬융합DB 구축을 적극 추진해 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

중기부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스타트업-소공인 협업형 사업 항 등을 조정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원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온누리신협-푸른지역아동센터, 신협 어부바 멘토링 협약

다양한 눈높이 프로그램 사회경제 발전 함양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과 푸른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숙희)은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협

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올해 25명의 아동에게는 1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협은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며 신협에서 직접 준비한 '눈높이 경제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제

관념과 안전한 금융생활 등을 가르친다. 또 신협 견학, 전통시장 장보기 및 요리 활동, 보이스피싱 교육, 여름방학 물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 다. 마지막 회기에는 그동안 배워온 금융과 경제지식을 퀴즈 형식으로 맞춰보는 '신협 골든벨'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감사편지 낭독 등으로 그동안의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할 계획이다. 박근규 온누리신협 이사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협동능의 가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민의소리, 어르신 420명에 자장면 나눔

지난 18일 전북노인복지관 웃음소리 이어가며 지역어르신들께 정성껏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전주시민의소리 회원들은 새벽부터 준비에 힘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심식사 자리는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전주시민의소리 회원들의 나눔행사는 지역 어르신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시민의소리 회원 30여명은 은 배식 및 안내 등 각자의 봉사역할을

유성동 예비후보 '달빛돌봄터' 100곳 공약

기초학력·예체능 지원... 긴급 시 밤 10시 연장 돌봄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최대 밤 10시까지 지역 사회가 아동을 책임지는 '달빛돌봄터' 100곳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달빛이 가장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공공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돌봄터 100곳 지정을 통해 아이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달빛돌봄터는 △학교형(25곳) △지역 아동센터형(50곳) △학교복합시설형(5곳) △지역형(20곳)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도내 곳곳에 배치된다.

모든 거점에서는 저녁 8시까지 기초학력, 문해력, 예술, 체육, 독서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희망자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밤 10시까지 야간 돌봄을 연장 가능하다.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과 가장 큰 차별점은 '운영 주체'다. 유 예비후보는 "달빛돌봄터 학교형의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며, 모든 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담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거점마다 도서관, 놀이센터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단위 의사결정 기구인 '전북돌봄협의회'와 기초 단위 '시·군돌봄협의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실무 전담 조직인 돌봄사업단 및 지원센터를 구축해 프로그램 질 관리와 감사 역량 강화를 맡길 예정이다.



유 예비후보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를 인용해 "학부모들이 지속되어야 할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이 초등 돌봄 및 방과후 교육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멈추면 지역은 소멸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교육 투자에 소

전북교육청, 야간 대입 진학상담 운영

30일부터 맞춤형 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입 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지원을 위해 '학생·학부모 맞춤형 야간 대입 진학상담'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오는 30일부터 12월까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과 전주 진로 진학상담센터에서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수요가 집중되는 6개 시 지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은 매주 상담 창구를 연다. 8개 군 지역(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은 격주 대면 상담과 화상(Zoom) 상담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현장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진학 전문 교사 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부터 대학 및 학과 선택, 수능 대비 학습 전략까지 대입 전반에 대

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학부모 등 대입 정보가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배정된 상담 시간은 40분이다.

참여 희망자는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에 접속해 '지역별 대면 화상 상담(야간)' 메뉴에서 상담 희망일 1~4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대면·화상 상담 외에도 '올인원(All in One) 진로진학 상담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상세 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최은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대입 환경 변화로 진학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됨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학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전담 '긴급지원팀' 운영

학교장 권고 불이행 시 교육지원청 즉각 개입

학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학교가 교육당국에 개입을 요청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전북에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정서·행동 위기학

생을 전담하는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의 상담 및 치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는 즉각 교육지원청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이뤄지면 긴급지원팀은 정신건강전문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장 권한으로 해당 학생의 상담과 치료 이행 여

부를 결정한다.

긴급지원팀은 교육지원·생활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장학사, 위(Wee)센터 전문인력, 정신건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위기 학생 상담과 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평가와 컨설팅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도 가동한다. 위탁

운영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대자인병원 등 3곳이 맡았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보호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로막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긴급지원팀을 통해 학부모를 적극 설득하고, 병원 연계 치료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2026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공모 시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이 '2026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마을과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민담·설화·이야기 등 마을 자원을 문화적 자산으로 재구성해 소멸 위기 마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이번 해에는 총 2억 5천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0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마을 6곳과, 해당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도내 소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2개이다.

신청된 운영단체에는 단체별 최소 8천만 원, 참여 마을에는 1개소당 최소 2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4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문으로 신청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단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마을과 단체는 △주민 참여 마을 공감 프로그램 △마을 이야기 구술 및 채록 △마을문화학 집 발간 및 소득 창출 지원 등 다각도의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록된 결과물이



실제 지역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지난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기억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강력한 문화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2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더욱 확장해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북만의 독창적인 인구정책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는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차세대 핸드볼 주역들, 익산서 기량 겨룬다

스포츠 도시 익산에서 전국 학생 핸드볼 선수들의 열전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81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핸드볼협회와 익산시핸드볼협회가 주관하며, 핸드볼 대회 중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종별 선수권대회이다.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부 82개 팀,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별 최강자를 가린다.

경기는 △익산실내체육관 △원광대학교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제34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1차 선발전도 함께 열려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이리송학초등학교, 이리중학교, 전북제일고등학교, 원광대학교 등 지역 연구팀이 출전해 홈 관중의 응원 속에 열띤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를 익산에서 개최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시민들에게는 활력을, 지역경제에는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회장 임근홍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www.kosca35.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제임원·지역위원장

회 장	임근홍 (유)유림건설	유홍중 (주)누리토건	김만성 (유)보성건설
부 회 장	김진호 (유)대안건설	박병규 (주)계림건설	
감 사	최영재 (유)성주건설	박관용 (유)성지토건	강훈희 (유)대가건설
운영위원	신현철 (유)서영건설	방한웅 (유)도암건설	박이수 (유)베스트이엔씨
	박병태 (유)금나라건설	임완택 (유)석금	박범기 (주)토림
	김종욱 (유)대광건설산업	김남한 (주)우성인테리어	이우상 (유)금강건설
	김재주 창남건설(주)		
지역위원장	군산 박상배 (주)고려건설	김제 이선한 (유)금정건설	남원 김재주 창남건설(주)
	부안 강훈희 (주)대가건설	순창 오춘두 (유)한성토건	완주 최한영 (유)삼라건설
	익산 장연갑 (유)청우건설	장수 이대운 (유)계남건설	정읍 신현철 (유)서영건설
	진안 강준희 성안건설(주)		

군산시, 청년 150명에 기업 면접비 1회 5만 원 지원

군산시 청년들에게는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관내 기업 면접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외 청년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소재 사업장에 면접을 응시한 18세~39세 구직 청년 150명으로 지원 금액은 1회 5만 원이며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회만 지원한다.

면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면접자 본인이 군산시 청년플 누리집(gsyouth.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을 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이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AI 면접이나 비대면 화상 면접, 취업박람회 등에서 진행된 면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 30시간 미만 또는 근무 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면접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면접비 지원사업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 내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월명국민체육센터 내년 '착공'

건축설계 당선작 공개 6레인 실내수영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

군산시는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하고 당선작을 공개했다.

지난 1월 26일 건축설계공모 공고 이후 전국에서 16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으며, 지난 2월 26일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총 8개의 설계안을 심사해 최종 당선안을 선정했다.

당선안은 월명종합경기장내 기존 체육시설과의 통합 연계를 주요 콘셉트로 '월명 네트워크 허브'를 제안하고, 단지 내 다양한 접근을 고려하여 열린 공간을 계획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엔지(대표 이길환) 설계안이 선정됐다.

2위 우수작에는 (주)에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박성기)가 선정됐으며, 3위 입상작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응모 (주)에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가 차지했다.



월명국민체육센터건축설계공모당선작 조감도

<사진=군산시>

이번 당선안을 바탕으로 건립되는 월명국민체육센터는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25m 6레인의 실내수영장, 다목적실, 부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약 2,500㎡ 규모의 생활체육 전문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총사업비 120억 원(기금 3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60억 원)을 투입해 당선작을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2027년 공사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건립될 월명국민체육센터는 기존 노후화로 폐쇄된 월명실내수영장을 대체해 현대적이고 쾌적한 수영 및 운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농가 돕는 직거래장터 '성황'

3일간 매출 1,600만원 기록

익산시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로컬푸드 농가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익산시는 시청 1층에 마련한 '익산 로컬푸드 농가 상생 직거래 장터'를 당초 18일까지에서 오늘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의 계약 종료와 기존 운영 주체의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장터 방문객의 활발한 구매와 농가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운영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실제 3일간 총 약 1,6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45농가의 판로 확보와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터에서는 본격적인 노지채소 출하 절정 시기를 고려해 하우스 작물과 저장 농산물, 계란 등 16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연장 운영 기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 수수료 환급 시작

모현점 168농가에 첫 환급금 지급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환급제'를 본격 시행하며 농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서 물건을 판 농가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수수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농가는 총 168곳으로, '모현로컬푸드수환급'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직접 입금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 농가는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고, 매출에 따라 5~8%만 내도록 낮춰준 것이다. 매출이 적은 농가는 1년에 최대 50만 원까지 보너스처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4번에 걸쳐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현점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향후 어양점이 정상 운영에 돌입하면 즉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특정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 흙된 농업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운영 수익을 다시 농민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재투입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읍면동장 소통회의 개최 "생활 민원 꼼꼼히 챙길 것"

정읍시가 지난 18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3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읍면동장 소통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생활 민원 해결과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해 각 국·소장과 23개 읍·면·동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과 이달의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행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비롯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한 생활 민원 발굴 및 신속한 대응을 각 읍·면·동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읍·면·동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의 최일선인 만큼, 생활 민원 하나하나에 세심히 대응하는 것이 곧 시민 체감 행정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7월까지 전직원 대상 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강화 특강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8회의 AI 교육을 추진하며, 행정업무에 AI 활용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시는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며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은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정책 개발, 자료 작성, 보고서 제작 등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공직자의 인공지능(AI)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높이고 이를 행정업무에 적극 접목하기 위해 '2026년 인공지능(AI) 역량강화 교육'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 및 보고서·PPT 제작 △생성형 AI 기반 공공행정 업무 효율화 실무 △딥러닝 기반 정책자료 조사 및 데이터 시각화, 보도자료 작성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반복적·정형화된 업무는 AI로 효율화하고, 정책 기획과 홍보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직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신규 직원 19명과 현장 소통

이학수 시장과 공직 생활 고충 털어놔

정읍시는 지난 18일 이학수 시장과 19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 한 끼를 나누며 공직 생활의 고충과 진솔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는 현장 소통 간담회 '브런치 토크'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제 막 공직에 들어와 낯선 환경을 마주한 저연차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공감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인생 선배이자 공직 선배인 시장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고 격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편안한 식사 자리로 꾸며진 이날 행사에서 신규 직원들은 평소 공직 생활에 대해 품고 있던 궁금증부터 개인적



지난 18일 열린 이학수 시장과 신규 공무원 소통 간담회

<사진=군산시>

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질문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이학수 시장 역시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진솔한 답변을 이어가며 화기에 애한 대화를 이끌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정읍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저

연차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마주 앉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유익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동의안 등 총 36건 안전 심의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9일 제 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익산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전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임선 의원-대상포진 백신 재고 2,600개 ... 시민 건강 외면한 익산시 보건행정 △장경호 의원-인구 10만 도시만도 못한 전기차 예산, 시급한 복구 촉구 △김미선 의원-송학동 주민의 염원, 송학군민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김순덕 의원-국가식품클러스터 기숙사를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쓰는

복합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김경진 의장은 "그동안 제9대 익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마을기업 4개소 최종 선정

공동체 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신규 지정 3곳을 포함해 총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6개 선정 기업 가운데 정읍시 소속 4개 기업이 포함되며 도내에서 눈에 띄는 선정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심사를 통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신규 마을기업은 정읍연지마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리본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용호지향마을 협동조합 등 3곳이다. 이와 함께 감성나무 협동조합은 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단체다.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기업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자원과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지정된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야간연장돌봄 운영

돌봄 공백 해소·양육 부담 완화

군산시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야간연장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운영 중인 곳은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와 오식도 지역아동센터 등 총 2개소다. 이용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퇴근 시간이 늦

어지는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봄철 조림사업 돌입

익산시가 봄철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해 총 65ha 면적에 약 16만 본의 나무를 식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림사업은 이용 가치가 낮은 산림의 경제립 전환을 비롯해 조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조림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림 등을 조성해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요 산림지역 등 65ha에 편백과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등 경제

수종과 큰나무 16만 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림사업 이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조림 후 3년 이내 산림은 풀베기와 덩굴 제거를 실시하고, 5~10년 된 조림지는 어린나무가꾸기, 15년 이상 조림지는 큰나무가꾸기(숙아베기) 등 생육 단계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적지에 식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풀콩법인, 공동영농 확산 공모 선정

‘임대형 공동영농모델’ 혁신적 가치 인정 기계장비 등 20억 지원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풀콩영농조합법인(이하 풀콩법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기존 5개소가 먼저 선정된 데 이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풀콩법인이 추가 1개소로 이름을 올리며 혁신적인 농업 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풀콩법인은 폐기 넘치는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법인으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공동영농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농가가 법인에 농지를 임대, 법인이 일괄 경영·영농을 수행하고 법인은 참여농가에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개별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풀콩법인은 고품



부안 풀콩영농조합법인

<사진=부안군>

질 콩 생산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컨설팅 및 기계장비 등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풀콩법인 대표(홍민재)는 “이번 공모 선정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조직이 아니라, 데이터와 장비를 활용해 농업

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농업 경영 전문가’ 집단을 지향하고 기존의 관행농업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과 상생하며 혁신적인 농업모델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며 두류 생산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제5회 고창신재효문학상 ‘만금빌라’ 수상

이강원 작가 장편소설

고창군이 지난 18일 동리국약당에서 제5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이강원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문화예술단체, 독서동아리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작으로는 이강원 작가의 장편소설 ‘만금빌라’가 선정됐다.

이강원 작가는 고창군 심림면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20년 장편소설 ‘아버지의 첫 노래’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소년의 강’,

‘중정머리 없는 인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수상작 ‘만금빌라’는 전쟁과 질병으로 가족을 잃고 현재는 땅을 파는 건축업자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인 이들의 갈등과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이 벌써 제5회를 맞으며 문학인들에게 의미 있는 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민은 물론 전국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간부회의 유튜브 생중계 시범운영

행정 투명성·소통 강화 군민 알 권리 확대

고창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3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열리는 간부회의를 고창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이다. 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안과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 하회의 운영 방식, 군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식 운영 여부와 확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정의 주요 논의 과정과 정책 추진 방향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

이고 군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군정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 생중계는 23일 오전 8시30분 고창군 공식 유튜브채널 ‘고창군’의 라이브 화면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24일까지 주요 안건 처리

제296회 임시회 돌입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9대 김제시의회의 실질적인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조례안 심사 및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등 시정의 연속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엔 선임된 7

명의 결산감사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 전반에 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제언 △드류 전략작물 직불제 개선 촉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공영주차장 확충 효과 ‘톡톡’

26개소 운영… 주차난 해소

부안군은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군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부안을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오정 공영주차장 등 부안읍 관내에 총 26개소(2011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에 기여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어 도로 통행이 원활해지며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영 중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은 일평균 약 620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월 87건에서 월 71건으로 19%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

김제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136억원을 투입해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대상지는 김제여고, 한들중, 감산초, 김제초 앞으로 통학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지중화사업은 지하화 공사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찬 건설과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관리와 민원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보수교육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9일 부안푸드앤레조센터에서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출하 희망자 및 정기출하 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매장 출하기준과 철저한 품질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가도 원활히 납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출하사용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교육에서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군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안형 푸드플랜의 핵심 경쟁력이 농가의 간간한 품질관리에 있음을 강조했다.

양적 성장세에 발맞춰 지속적인 농가 교육으로 농산물의 질적 향상도 함께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로컬푸드의 놀라운 성장은 전적으로 참여농가의 성실함과 탐방을, 굳건한 신뢰가 좌우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선한 부안로컬푸드가 곧 부안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인구 5만 지키기’ 유관기관 집중 홍보 총력

전북 고창군이 인구 5만 사수를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2월 말 기준) 인구 5만196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집중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고창 인구 5만 지키기, 나부터 함께’를 슬로건으로, 전 군민과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된다. 특히 ‘고창 밤 주소 갖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지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실과, 사업소는 물론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전 행정조직이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각 부서는 소관 업무와 연계한 인구 유입 및 전입 유도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창 밤 주소 갖기’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실거주 미진입자에 대한 전입 유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순필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인구 5만 유지는 고창군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전 공직자와 군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홍보를 통해 인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중소기업 지원 위한 융자심의위원회 열려

김제시는 지난 18일 김제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심의위원회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과 함께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기업 선정 심의·의결을 진행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08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 지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업체당 융자금 최대 5억원에 대한

4%의 이차 차액을 보전해 줬으며 이를 통해 총 1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이날 위원들은 작년 말 기준 기금 잔액 및 예탁 내역을 투명하게 점검하는 한편, 2026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과 더불어 각종 기업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올해 첫 ‘작은축제’ 3개 확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민 행복 문화 조성

김제시가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개의 우수 축제를 선정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문화 기반 조성에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자원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콘텐츠와 주민 참여도가 높은 축제를 발굴·지원해, 시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중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역 내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총 11개 축제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서면 심사 등을 거쳐 7개 축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8일 작은축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평가기준은 축제 콘텐츠 발전역량, 축제 운영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으며, 그 결과 △최우수 새만금 보리밭축제(2천만원) △우수 청하 하소백련축제(1천5백만원) △육성 황토에서 자란 인삼이야기(1천만원) 등 총 3개 축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시는 선정된 3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 다방면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작은축제 육성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즐기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축제들이 김제만의 색깔을 담은 매력적인 지역 명물로 성장해, 지평선축제와 더불어 지역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모양성제 ‘블랙이글스 에어쇼’ 선보인다

공군 특수비행팀 초청 역대급 볼거리 선사

고창군이 제53회 고창모양성제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고창군은 올해 모양성제 기간 중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초청해 역동적인 에어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고난도의 특수비행과 정교한 편대 비행으로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창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고창모양성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사진=블랙이글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고창모양성제에서 선보이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고창

읍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하늘 공연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바이오산업 육성·임상 거점 출범

바이오테스팅센터 25일 개관 화장품 시험·피부임상 통합 지원 검사·임상 수수료 할인 프로모션



<사진=남원시>

남원시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가 오는 25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문을 여는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는 화장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시험검사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피부임상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지원 거점이다. 그동안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했던 영호남 지역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개관에 맞춰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임상 프로모션'을 전격 실시한다. 개관식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생물, 중금속 등 품질관리

필수적인 시험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하며, 기능성 및 일반 화장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피부임상 수수료 30% 감면 또는 피부자극시험 1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식약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첨단 분석 및 피부 측정 장비를 완비했다. 특히 전문 연구진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단순 분석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루선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전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시험인증과 공동 R&D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오후 1시 진행되는 개관식은 부대행사로 기업들의 실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세션도 마련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청아원·청연, 상주단체 육성 공모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시민 참여형 예술활동 확대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과 민간예술단체 '(유)청연'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6일 심의를 통해 도내 15개 신청 단체 중 8개 단체를 최종 확정했으며, 남원시에서는 청아원과 (유)청연이 이름을 올려 도비 7천 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지역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양측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청아원의 상주단체로 선정된 (유)청연은 남원 지역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연희단이다. 국악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독창적인 창작 활동으로 전국 단위 공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사회책임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보일 주요 프로그램은 △창작 공연 '남원 재주꾼 모듬공고'(1회) △우수 레퍼토리 공연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꽃'(1회), '빛나는 밤에 청연'(1회) 등이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땀땀! 예술이 도착했습니다'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산자연휴양림 웰빙휴양관 객실·편의시설 정비 '새 단장'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고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웰빙휴양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리모델링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객실 및 내부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웰빙휴양관은 고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숙박시설이다. 이번 단장을 통해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노후화 문제를 해결했으며, 객실 환경과 내부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이용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기존 휴양림의 이미지를 탈피해 고품격 휴양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프리미엄급 휴양림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이번 웰빙휴양관 재개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안한 휴식과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고산자연휴양림이 프리미엄 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순창군, 암관리 사업평가 5년 연속 '우수'

전북 평가도지사 표창 수상 참여 독려·찾아가는 검진 성과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암관리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과 암 예방 홍보, 우수사례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순창군은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 우수기관에 이어 지속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창군보건의원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전화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장 검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 무료검진(폐암·전립선암)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은근군 순창군보건의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실랜드,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선정

2024년 이어...경쟁력 재확인 자연치유·명상 등 콘텐츠 강점

순창군 실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6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힐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실랜드는 2024년에 이어 재선정되며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은 관광객의 건강과 치유, 휴식을 아우르는 고품질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웰니스 관광 산업의 수준을 가능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평가는 △프루트 △스테이 △뷰티 △스파 △자연치유 △힐링 △명상 △한방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선정지 88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관광 상품화,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상품 판촉 등 다양한 전략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실랜드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관광을 넘어 심신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이 주요 강점으로 작용했다.

실랜드는 정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요가, 명상, 치유 프로그램, 건강 식단 체험 등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운영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업 연수 및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건강 식단 제공과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모델을 구축해 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창만의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착수

412억 투입 상수도 인프라 구축 '전 지역 물 복지' 실현 속도

완주군이 지방상수도 미보급으로 식수와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동상면 지역을 대상으로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전 지역 물 걱정 없는 완주'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완주군은 지방상수도 공급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동상면 일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군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도비 보조예산 확보해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상수관로 56.6km, 배수지 1개소(500㎡), 가압장 14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군은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동상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한다.

그동안 완주군은 상수도 공급에서 상

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상수도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비봉면과 운주면, 경천면에 이어 최근 화산면까지 순차적으로 지방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며 미급수 지역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남원시, 람천 수질오염 예방 민관 합동 특별점검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 집중 확인 오염 우려축사 대상 점검 강화

남원시는 최근 람천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7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축사 주변 배수로 및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남원시와 함양군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해 현장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남원시는 람천 유역 인근 인월면, 아영면, 운봉읍, 산내면에 위치한 축사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하천과 인접해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축사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사진=남원시>

△퇴비 및 액비의 야적 여부 △축사 주변 배수로 및 하천으로의 가축분뇨 등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계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람천 유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하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43기 노인대학 입학식 '활기찬 노후'

(사)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회장 최일천)는 19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기 순창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순창군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입학식은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학장 인사, 순창군수 축사 및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영민 순창군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군수는 "노인대학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평생학습의 장"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순창군>

또한 순창군이 전체 인구 대비 약 39%가 노인 인구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임을 설명하며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위생관리 △마음건강 유지 △경제활동 참여 등 균형 잡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병문 노인대학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서 제15회 산수유 꽃 축제 개최

남원시 주천면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용궁리 산수유 군락지 일원에서 '제15회 주천면 산수유 꽃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산수유 꽃길 따라, 가족의 봄이 머무는 주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축제 기간 동안 식전행사와 기념식을 비롯해 공연,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F&B)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산수유 꽃이 만개한 봄 풍경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기존 하루 일정에서 이틀간으로 기간을 확대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행사 등 지역민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21일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과 공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군, 제81회 식목일 기념 1.2ha 면적에 '이팝나무' 심어

무주군은 19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안성면 사전리 산16 일원 '오두재임도' 주변 1.2ha 면적에 '이팝나무' 120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림 경관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은 묘목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산림 전문가를 초빙해 '나무 심기 교육'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팝나무'는 생육환경 적응력이 좋고 사계절 감상 가치가 높은 조경수로, 앞으로 '오두재임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꽃길과 시원한 그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산림자원이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안전순환임도(43.1km)를 활용해 산악레포츠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등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4-H연합회, 공동과제포 조성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4-H연합회 회원 27명을 대상으로 지사면 금평리에 있는 공동 과제실습 포장(1.963ha)에서 영농과제 일환으로 더 나은 감자 재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 포장을 조성했다. 공동과제포 활동은 4-H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포장을 조성하여 작물 재배를 실천해 봄으로써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등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영농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과제포장은 봄감자 재배 후 같은 포장에 콩 재배를 함으로써 감자와 콩 이모작을 통한 생육과 수확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작업의 효율성, 수량 증대 여부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영농 시범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공동과제포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수익금 일부를 연말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왔으며, 올해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춘성 군수, 국토부 장관 면담 지역 핵심 SOC 사업 반영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가 19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진안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정부의 중장기 교통 인프라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지역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 군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철도 구축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월당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번에 건의한 핵심 SOC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생활·의료연계 등 9가지 서비스 제공

무주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하 통합돌봄 사업)'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거주지)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

주요 서비스에는 △가사 지원, △병원 및 약국 동행 지원, △영양 밀반찬 등 식사 지원, △방문 목욕 지원, △방문 이미용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일상생활 및 주거지원 특화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재택 의료센터 연계 서비스도 진행된다.

이은숙 무주군정 사회복지과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향후 방문 의료, 다제 약물관리 등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일상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대상지 장수역사전관 선정 올해 가을 중 개관 예정

장수군의 '한글놀이터 장수관(가칭)' 조성 대상지로 장계면에 위치한 장수역사전사관이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추진하는 '한글놀이터 지역확산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문화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 시설과 연계해 어린이와 지역 주민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한글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세종시에 1호 '한글놀이터'가 조성된 데 이어, 올해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지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놀이터 장수관은 장수역사전사관 내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정체성과 한글의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는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해 올해 가을 중 개관할 계획이다.



장수군의 '한글놀이터 장수관(가칭)' 조성 대상지로 장계면에 위치한 장수역사전사관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이번에 조성하는 한글놀이터 장수관을 '자연이 만든 말, 역사가 남긴 이름, 인물이 지켜낸 한글'을 주제로 설정해 장수 출신 한글학자 정인승 박사 등 지역 자산을 접목한 콘텐츠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의 '말랑통통 한글 요정'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를 기반으로 장수군만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특화 콘텐츠를 더해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한글 프로그램도 운영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포용형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에 나간다는 구상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체결

군,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친화 일촌기업 7개소와 협약 체결

임실군과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임실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관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나래식품(주)을 비롯해 임실치즈축산협동조합, 정드림노인복지센터, 관촌원공수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이플영농조합법인, 무지개영농조합법인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

았다. 군은 이번협약을 통해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과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채용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구직자 우선 알선 및 사후관리, 인턴채용지원금 최대 400만원, 기업환경 개선지원 최대 500만원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인턴기간 3개월동안 월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장려금 80만원이 지원된다. 취업자에게도 취업장려금 60만원이 지급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와함께,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재직여성

대상 직장문화 교육, △조직원문화 개선 코칭등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회와 공인노무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참여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협약을 계기로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현장 점검 실시

급경사지·저수지 집중 점검

장수군은 지난 18일 해빙기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붕괴와 낙석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동화N1지구, 원안양 저수지 등으로, 군은 인근 주택지 주민 대피 계획과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동화N1지구는 지난 2024년 도로 낙석이 발생했던 현상으로, 현재 낙석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토목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내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해 위

험 요인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최훈식 군수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예찰과 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무상공급

EM·광합성균·유산균 등 7종

무주군이 120톤 규모의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을 직접 생산해 지역 내 농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농업 미생물은 EM(복합유용미생물), 광합성균, 유산균, 해조아미노산, 바실러스균, 질소제거균, 클로렐라 등 총 7종으로, 농작물 생산성 증대 및 면역력 강화, 축사 내 악취 감소 효과가 뛰어나다.

유진광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장은 "지나해에는 7,054 농가에 약 137톤을 공급했다"라며 "올해는 노후 미생물 배양기 교체 사업이 완료돼 고품질의 농업용 미생물 생산 환경이 크게

개선된 만큼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미생물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운영시간 09:00~18:00,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받아 갈 수 있으며, 운영시간 이외에는 미생물배양센터 외곽에 설치된 '무인 공급 장치'를 이용하면 된다. 기본정보를 등록하면 연중 EM 수급이 가능하다. (600 제한 / 1일, 1 농가)

또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및 이동 취약자에는 무공면과 안성면 농기계임대사업장 내에 마련된 미생물 공급분소에서도 EM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예정

장수군은 내달 6일까지 20일 간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162,681필지로, 장수군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감증을 거쳐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기간 동안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운영하며, 조사된 감정평가사 감증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 접수

를 진행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촌여성 리더 양성 교육 실시

2026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임실군이 농촌 지역 여성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총 6일간 관내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 문화복지마당, 농기계임대사업소 교육장 등 현장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농촌 여성들의 실천 역량을 높이고 학습 단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회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과제교육: 이불, 앞치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광목공예' 실습 △농작업 안전 교육: 중대재해 처벌법 이해와 농업 현장 적용법,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예방 등 농작업 재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당면 영농기술 교육이 실시된다.

최소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생활개선회 조직이 활성화되고, 여성 농업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 리더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이해·제고·인권보호 교육 강화

장수군은 지난 1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은 지난 18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인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이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침해 예방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장수군은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존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에 더해 베트남, 라오스

와의 MOU 체결을 통해 총 5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38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부족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수군은 입국 이후 1:1로 농가를 방문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이다"며 "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인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지사면, '2026 지사면 한국대회' 개최

임실군 지사면 한국지도자대회에서는 지난 14일 관내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2026 지사면 한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위원회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한국대회는 농한기를 맞이하여 무료로 지내시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별로 3일씩 찾아가서 한공에 대한 역사와 경기 하는 방법등을 가르치고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한공에 대하여 다시한번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전홍복 거점위원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사면한공지도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협동심을 기르는데 힘쓰겠다고"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생태체험 진행

완주군가족센터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37명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행복 플러스 사업 부모·자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생태 해설가의 안내와 함께 전시관을 탐방하고 생태학습지와 생태 퀴즈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외 생태공간을 탐방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실천 행동 교육에도 참여했다.

신항 센터장은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대학교병원 고은정 연구팀 학술대회서 'Top4' 선정

제65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서 'Top 4 Abstract'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은정 교수팀이 제65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Top 4 Abstract'에 선정됐다.

'Top 4 Abstract'는 학술대회에 제출된 연구 초록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연구에 수여되는 상이다.

관련해 고은정 교수팀은 '간접형 내경동맥-해면정맥동루(CCFs)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임상 결과' 우수성을 발표하며 인정받았다.

고 교수팀이 발표 주제는 '간접형 내경동맥-해면정맥동루(CCFs)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의 임상 결과'이다.

내경동맥-해면정맥동루는 눈 뒤쪽 혈관에 비정상적인 통로가 생겨 충혈, 안구 돌출, 통증 등을 유발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실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이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기존 전신마취 혈관 내 수술 대신, 192개의 감마선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 분석 결과에는 감마나이프 수술은 수술 칼이나 기구 삽입 없이 비정상 혈관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이차적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고령 환자나 내과 질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으며, 당일 입원과 퇴원이 가능한 '1-day 시술'로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임상 데이터로 입증했다.

고은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로 조기 진단만 이뤄진다면 전신마취 부담 없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내경동맥-해면정맥동루를 완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관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사면한공지도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협동심을 기르는데 힘쓰겠다고"고 전했다.

전홍복 거점위원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사면한공지도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협동심을 기르는데 힘쓰겠다고"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생태 해설가의 안내와 함께 전시관을 탐방하고 생태학습지와 생태 퀴즈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외 생태공간을 탐방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실천 행동 교육에도 참여했다.

신항 센터장은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가족센터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37명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행복 플러스 사업 부모·자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생태 해설가의 안내와 함께 전시관을 탐방하고 생태학습지와 생태 퀴즈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외 생태공간을 탐방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실천 행동 교육에도 참여했다.

신항 센터장은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주)유니드비티플러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마루 교체 지원

5000만원 상당 마루 교체 지원 장애인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정읍시는 지난 18일 (주)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마루 교체 공사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식에는 한상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 기업 관계자 5명이 참석해 기탁 취지를 설명하고, 정읍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노후화된 복지관 바닥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치료실, 다목적 강당, 교육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의 핵심 기능 공간 전체가 포함된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 시공될 마루는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 기능이 강화돼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 안전성과 활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는 지난 18일 (주)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마루 교체 공사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식에는 한상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김상민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 기업 관계자 5명이 참석해 기탁 취지를 설명하고, 정읍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노후화된 복지관 바닥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치료실, 다목적 강당, 교육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의 핵심 기능 공간 전체가 포함된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 시공될 마루는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 기능이 강화돼 장애인 이용자들의 이동 안전성과 활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주)함께하는공간연구소, 고창군에 장학금 기탁

(주)함께하는공간연구소 권원석 소장이 지난 18일 고창군 장학재단에 지역 인재들의 밝은 미래와 성장을 응원하며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시에 소재한 (주)함께하는공간연구소는 고창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권원석 소장은 "고창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마주한 지역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전달된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펼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고창군 장학재단 관계자는 "고창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시는 권원석 소장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에 매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전주시 소재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인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해당 업체는 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400만 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주)제이엠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로 기반으로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건축 환경과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 온 기업으로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를 통해 지역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정순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착한가게 가입을 결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전유심 어르신, 아껴 모은 생활비로 장학금 기탁

군산시 나운2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소 틈틈이 아껴 모은 생활비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유심 어르신은 최근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학금 15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전 어르신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과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돕고 싶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나운2동에서는 몸이 불편한 지역 주민이 10만원을 기탁하는 등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귀한 기탁을 해주신 어르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영등2동 '한씨네 포차', 착한가게로 나눔 동참

익산시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한씨네 포차(대표 한정순)'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씨네 포차는 친근한 먹거리와 따뜻한 분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음식점으로, 이번 착한가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한정순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착한가게 가입을 결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두련 영등2동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는 지역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영등2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행복 산림(林) 든든한 버팀목(木) 완주군(전주)산림조합. 용진본점 : 완주군 용진읍 운곡4로 9 ☎063)225-8691~4. 모래내점 :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75 ☎063)225-9511~2. Illustration of people in a forest.

〈一事一言〉



하천과 계곡, 이제는 공공으로 되돌려야 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불법은 관행이 아니라
행정이 만든 결과”

전북자치도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섰다.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반복돼 온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다. 공공 공간을 둘러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주조사에서 드러난 불법 점용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도내 전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시설이 확인됐고, 그 유형 또한 경차, 평상 설치, 물건 적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일상처럼 굳어진 불법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고 방치된 결과이며, 결국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불법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점이다. 유권자와의 관계, 지역 민원에 대한 부담,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 북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불법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행위는 단순한 행정의 미온적 태도를 넘어 공공 자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홍석 부지사 주재 회의에서 강조된 ‘강력 대응’ 방침은 이러한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분명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단속보다 제도, 원칙보다 타협이 우선시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잠시 미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불법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재 보고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고 내용의 축소나 은폐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요구한 것은, 공공 자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하천·계곡 정비 정책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불법 시설을 과감히 철거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린 조치는 공공성 회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당시 정책이 큰 지지를 얻었던 이유는 단순히 시설을 정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을 공공에게 돌려주는 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 행정은 그와 거리가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하천과 계곡은 사실상 일부의 사유지처럼 이용돼 왔다. 단속은 형식에 그쳤고, 위반은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성은 점점 훼손됐다. 불법은 관행이 되었고, 관행은 다시 면죄부로 작용했다. 이 악순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이번 전북도의 조치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일시적인 단속으로 끝난다면 불법은 언제든 되살아난다. 행정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법은 신뢰를 잃고, 결국 공공 질서는 무너진다. 강력한 조치 못지않게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점검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하천과 계곡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특정한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가족이 휴식을 취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공간이다. 그 기본적인 권리가 일부의 불법 점용으로 제한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홍석 부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반복되는 불법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이 공공의 편에 서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공의 공간을 공공에게 돌려주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적인 의무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전북 행정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사설

수출기업 덮친 중동 리스크…전북 정교한 대응 시급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해상 물류 차질이 맞물리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기업들은 물론 서민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단순한 단기 충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보다 총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는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물류 지원, 운임 상승, 보험료 증가, 환율 불안 등 복합적인 애로를 점검했다. 특히 일부 선사의 추가 요율 부과와 선적 지연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으며 환율 급등락은 수익성 악화를 넘어 경영 계획 자체를 흔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을 투입하고 기업당 최대 2억을 지원하는 조치는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년 거치 일시상환과 이차보전 조건 역시 기업들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장치다.

물류비 지원 확대와 무역보험 우대 트랙 신설, 수출바우처 사업 보완 등도 의미 있는 대응이다. 특히 무역보험을 통한 리스크 분산은 대외 변수에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

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역시 상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보전이나 긴급 자금 지원을 넘어 수출 구조 자체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신형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 경로와 거래 조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한다.

또한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환헤지 상품 활용 지원, 금융 컨설팅 확대 등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기업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행정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정보와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

전북도가 가동 중인 비상경제대응 TF 역시 보다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 민생물가, 석유가격,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제적 정책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유가 상승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중동 리스크는 외생 변수이지만 그 파급력은 지역 내부의 체질에 따라 달라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때, 이번 위기는 지역경제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시

정든 세월에게 / 안도현

홍매화 꽃망울 달기 시작하는데 싸락눈이 내렸다.
나는 이제 너의 상처를 감싸주지 않을 거야
너 아픈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너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백지 위에다 쓰지 않을거야
매화나무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나뭇가지 속이 뜨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너를 위하여 내가 흘린 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싸락눈이 봄날을 건너가고 있었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원광대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설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석대 문학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2019년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이직했다.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향 예천으로 돌아갔다.

독자광장

어린이 교통안전, 모두의 책임



에게는 곧 ‘위험구역’이 된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서도 강화된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제도의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이다.

운전자는 ‘혹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횡단보도 앞 ‘멈춤 - 살피기 - 건넌’ 습관을 반복 교육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등하길 안전지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차량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사고 발생 가능성과 치명률은 크게 낮아진다.

아이 한 명의 안전은 한 가정의



행복이며 결국 우리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손을 흔들며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지역,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잠깐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 특히 주택이 이면도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학원 차량 승차차 지정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아이들



설씨부인 권선문 (보물 제728호)

-분류 - 기록유산, 서간류, 간독류
-지정일 - 1981년 7월 15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썩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효자동2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03.20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560-3075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인무지국 010-8640-6855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발백지 010-3015-4791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전지 010-5242-3694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재



김제시, 촘촘한 도로망으로

생활·경제 잇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제시가 '생활 속 불편을 없애는 도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간선망과 생활권 도로를 함께 손보면서, 통학·출퇴근·응급차량 동선까지 한번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제는 생활권 곳곳의 병목·단절 구간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크다. 다만 시는 최근 수년간 도로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기반 체력을 끌어 올리는 중이다. 시는 1,266.49km의 도로연장과 88.06%의 포장률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 체감 이 큰 구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행환경 정비·배수시설 정비를 묶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올해 추진할 생활권-도심-광역축을 동시에 잇는 도로분야 사업을 알아보자.

(편집자주)

생활권부터 광역축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 생활 속 불편을 없애는 도시계획도로 '단절을 있고 병목을 푼다', 도시계획도로 9개 노선, 생활권을 촘촘히 연결
그동안 일부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은 협소한 도로 폭, 교행 불편, 통학 안전 문제, 소방·구급차 진입 곤란 등 민원이 반복돼 왔다. 시는 이를 생활 SOC관점에서 접근한다. 단순한 차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보행·배수·가로환경까지 같이 손보는 방식이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은 9개노선(4.19km)으로 구성되며, 대로 1개(0.67km), 중로 2개(1.14km), 소로(2.38km) 사업을 묶어 장기 미집행 사업 정비 및 주민숙원 해소, 교통 분산을 동시에 노린다. 전체 사업비는 314억원 수준이며, 2026년에는 설계·보상·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21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착공-개통의 병목을 줄이도록 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는 점이다. 보상이 끝난 곳은 공정을 끌어올리고, 협의가 진행중인 곳은 보상률을 끌어 올려 공사로 이어지게 한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 교행 불편과 통행시간이 줄고, 응급차량 접근성과 통학 안전이 좋아지는 효과로 돌아온다. 길이 넓어지는 것 이상으로, 보행·배수·가로환경을

함께 정비해 생활 인프라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도 방점이 찍혔다. △ 길의 '질'을 바꾼다. 통학로 지중화로 학교 앞이 먼저 달린다. 도심에서 체감 변화가 가장 큰 사업은 '전선 지중화'다. 전봇대와 가공선이 보도 폭을 줄이고 시야를 가리면, 통학로는 곧바로 위험해진다. 김제시는 통학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중화 구간을 학교 주변부터 정비하고 있다. 지중화 사업은 총 136.74억이 투입되는 생활밀착형 기반 사업이다. 대상은 김제여고·한들중·검산초·김제초 주변 통학로이며 이미 총 2.35km 구간이 연차별로 추진됐다. [* 2023년 1.35km(김제여고 0.5km + 한들중 0.85km), * 2024년 1.0km(검산초 0.6km + 김제초 0.4km)] 지중화가 마무리되면 보행 공간이 넓어지고 전주가 사라지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가 개선된다. 비바람·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 안정성이 높아져 '안전'과 '도시경관'이 함께 좋아지는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학교 앞 구간은 통학시간대 체감도가 큰 만큼 공정관리 과정에서 안내시설·임시동선확보·민원 대응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 '도시의 출입구를 넓히다'광역교통 축과 김제 접근성 강화
생활권 도로가 '일상의 품질'을 바꾼다면,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외연'을 바꾼다.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작년 11월 22일에 개통했다. 개통구간은 55.1km, 왕복 4차로로 이동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 주행거리는 62.8km에서 55.1km로 약 8키로 감소하는 효과가 제시됐다. 김제시 입장에서 새만금 권역과 전주권이 빨라지면서, 물류·산단 접근성, 관광·생활권 이동, 기업 유치 여건에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연계 강화를 위해 하이패스IC 설치를 추진 중이다. 사업기간은 2021~2027년, 총 사업비 202억원 규모로 올해는 실시계획과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도21호선(백구~공덕~대야) 15.4km 구간은 2026년~2030년 동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될 계획이며 총사업비 2,565억원 규모다. 광역축의 확장은 물류 이동과 출퇴근 흐름을 바꾸고, 결국 기업·생활·관광의 도시경쟁력으로 연결된다. △ '사고는 구조로 막는다' 사고다발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정책에서 시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안전'이다. 김제시는 사고가 잦은 교차로와 선형이 위험한 도로를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구조개선으로 접근한다.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검산교차로에 집중된다. 2026년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으로 설계 후 발주·착수로 이어지는 일정이 잡혀있다. 교차로의 흐름을 안전하게 정리하면, 단순한 표지판 개선보다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크다. 또 하나의 축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다. 용두마을과 용두육교 구간은 총 사업비 21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올해 7억 400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본

격화 한다. 급커브·시아불량 등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손보면 운전 습관에 기대지 않아도 '길 자체가 안전해지는 변화'가 생긴다. △ '차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길도 넓힌다' 자전거·보행 네트워크 정비
시는 자동차 흐름 개선과 함께 걷고 자전거 타는 시민의 안전도 별도 축으로 챙긴다. 자전거도로는 도시구역 30.38km, 비도시구역 186.62km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2026년에는 도시구간 3.2km를 정비하는데 11억원을 투입한다. 보행자도로는 총 31.43km 수준으로 정비·확충을 이어가며, 총사업비 84억2,400만원 가운데 올해는 5억원을 투입한다. 시민 입장에서 '차가 덜 막힌다'를 넘어 걷기 좋은 동네·안전한 통학로·이동의 질이 좋아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성과가 안전을 만든다' 포트홀·제설·제조 등 유지관리 상시화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정책은 새로 뚫는 길만이 아니다. 겨울철 제설, 포트홀 보수, 도로 제조 같은 유지관리는 사고를 막는 최전선이다. 김제시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해 포트홀 보수·사리부설·제설 대응을 상시화 한다. 법정도로 제초는 연 3회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목 제거를 통해 낙하·전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인다. 큰 공사가 아니어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며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도로와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분야로, 작은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며 "2026년을 생활권 중심 도로 정책의 본격적인 실행 원년으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는 앞으로도 생활권과 산업,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과 편의,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은봉기 기자

